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26~11/01

1. 중간회랑 및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확장 통한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

2. 러시아-아프리카 물류 및 제조 협력 확대와 서방 제재 우회

3. 러시아 극동 항만 물동량 증가와 역내 물류 인프라 활성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4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와 러시아의 대외 협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중간회랑의 핵심 축인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현대화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되고, 물동량도 58% 증가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동시에 러시아는 아프리카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물류·통관 협력을 강화하여 서방 제재 우회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극동 항만을 중심으로 역내 물류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전략과 맞물림.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 증편은 한국과의 물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 향후 중간회랑과 극동 항만의 연계 강화가 유라시아 물류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중간회랑 및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확장 통한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

> **중간회랑의 핵심 축인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현대화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되고, 올해 1~8월 중간회랑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4만4000TEU를 기록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간회랑은 중국·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해와 캅카스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 경로로, 기존 북부 육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회랑의 핵심 철도 구간인 BTK 철도는 2017년 개통 이후 조지아 구간의 병목 현상으로 연간 100만 톤에 머물렀으나,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 대한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면서 2024년 6월 재개통됐다. 이에 따라 BTK 철도의 연간 수송 능력은 500만 톤으로 5배 확대되었고, 신규 선로 30.3km 부설과 기존 153.1km 보수, 윤축 교환 시설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용량 확대는 중간회랑 전체의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철도(KTZ)에 따르면 2024년 1~8월 중간회랑을 통한 물동량은 4만4000TEU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부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화주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BTK 노선이 자국의 경유 화물 잠재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하며,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로(TITR)의 주요 구성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간회랑의 인프라 확장은 환적과 운송 효율성 개선을 동반하고 있다. KTZ는 아제르바이잔·조지아·중국의 철도사와 공동으로 중간회랑 멀티모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송 일정 조율과 고객에 대한 단일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고정 운임 도입, 프로세스 디지털화, 항만 처리 능력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회랑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카자흐스탄 발 화물의 유럽행 경로를 다변화하고, 카스피해 횡단 운송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간회랑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BTK 철도의 용량 증대는 조지아 구간에 국한된 것으로,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구간의 철도 및 항만 시설, 카스피해 선복량 등 여타 구간의 병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회랑 전체의 균형 잡힌 개발이 물동량 증가세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KTZ 역시 항만 처리 능력 확대와 해상 운송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용량 100만 톤 → 500만 톤으로 5배 확대 (2024년 6월 재개통).
-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서 신규 선로 30.3km 부설, 기존 153.1km 보수, 윤축 교환 시설 신설 등 진행.
- 2024년 1~8월 중간회랑 물동량 4만4000TEU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KTZ 발표).
-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중국 철도사가 중간회랑 멀티모달 합작회사 설립, 단일 책임 체계 구축.
- BTK 철도는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로(TITR)의 핵심 구성 요소로, 카자흐스탄 경유 화물 확대 전망.

전망

중간회랑은 BTK 철도 현대화와 복합운송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수년간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경우 유럽-중앙아시아 간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카스피해 해상 구간의 선복량과 항만 처리 능력이 회랑 전체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시사점

화주 — 중간회랑을 이용하는 화주는 BTK 철도 용량 확대로 운송 시간 단축과 일정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여타 구간 병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포워더 — 포워더는 중간회랑 멀티모달 합작회사의 단일 책임 체계를 활용해 고객에게 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정 운임 도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선사 — 카스피해 연안 항만과 선사들은 중간회랑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터미널 처리 능력과 선복량을 확충해야 하며, 해상-철도 연계 서비스 개발이 중요해진다.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 조지아 구간 용량 100만→500만톤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연간 물동량 500만 톤 · Transport Corridors, 중간회랑 8개월 물동량 4만4000TEU…전년 동기 대비 58%↑ (검색일: 2026-11-01)

러시아-아프리카 물류 및 제조 협력 확대와 서방 제재 우회

> **러시아가 서방 제재 하에서 아프리카로 제조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물류·통관 협력을 강화해 제재 우회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3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들이 아프리카 국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힘. 이는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4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됨.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교역액은 2025년 기준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푸틴은 향후 500억 달러로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함.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임. 러시아 정부는 자국 석유 수출 정보를 국가 기밀로 지정하는 등 정보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소련식 대응으로 평가됨. 아프리카 생산기지 이전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과 현지 수요 충족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됨.

영향 측면에서 러시아의 아프리카 제조 진출은 역내 물동량 창출과 항만·물류 인프라 활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항만은 러시아발 화물의 환적 및 재수출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 그러나 아프리카 현지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인프라 부족은 물류 효율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 물류 시장의 리스크도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남. 러시아발 화물의 최종 목적지 추적이 어려워지며, 제재 대상 품목의 원산지 위장 가능성이 커짐.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우회 무역 탐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아프리카 교역액 270억 달러(2025년),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러시아는 500억 달러 목표
- 제3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대표단 참석(국가 정상 22명)
- 러시아 정부,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 정보를 국가 기밀로 지정
- 러시아 기업의 아프리카 제조 이전, 서방 제재 우회 목적 명시

전망

러시아의 아프리카 제조 진출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제재가 지속될 경우 물류 우회 및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특히 북아프리카·동아프리카 항만을 거점으로 한 러시아발 환적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 다만 아프리카의 투자 리스크와 서방의 2차 제재 가능성이 확대 속도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함.

시사점

포워더 — 러시아발 아프리카행 화물 증가 시 우회 운송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노선 발굴이 필요함.

화주 —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을 아프리카 경유로 우회할 경우 원산지·거래 경로에 대한 실사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항만·선사 — 북아프리카·동아프리카 주요 항만은 러시아발 환적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At the Third Russia-Africa Summit, Moscow Talked Big. But Who Was Listening? · The Moscow Times, Putin Claims Russian Firms Looking to Expand Manufacturing Across Africa · PortSEurope, Back in the U.S.S.R.: Russia bans information about oil exports (검색일: 2026-11-01)

러시아 극동 항만 물동량 증가와 역내 물류 인프라 활성화

> **러시아 극동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수입 급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 증편 등 역내 물류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있음.**

2026년 1~9월 러시아 극동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어항은 28만 7천 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4%에서 22.7%로 상승함.

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입 급증으로, FESCO의 한국-소비에트 직항 노선(KSDL)에서 수입 화물이 2만 8천 TEU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함. 수입 화물에는 엔진오일,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식품, 과일 등이 포함되며, 특히 동남아시아발 화물이 부산을 경유하여 환적되고 있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FESCO는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KSDL에 500 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추가 투입하여 서비스 빈도를 4일 1회로 증편함. 이에 따라 2026년 1~9월 KSDL 전체 처리량은 4만 2,600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이러한 물동량 증가와 인프라 확충은 역내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특정 항만 및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혼잡이나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어항, 2026년 1~9월 28만 7천 TEU 처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FESCO KSDL 수입 화물 2만 8천 TEU,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FESCO, KSDL에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으로 서비스 빈도 4일 1회로 증편
-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어항의 극동 항만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 점유율 14.7%로 상승
- KSDL 전체 처리량 4만 2,600 TEU,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전망

러시아 극동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입 수요 증가와 노선 증편에 힘입어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환적 화물 증가로 부산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역내 항만 간 경쟁 심화와 인프라 병목 현상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화주 —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서비스 빈도 증가로 리드타임 단축 및 공급망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포워더 — 동남아시아발 러시아행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을 활용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항만·선사 —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능력 확충과 선복 관리가 중요하며, 노선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요구됨.

참고자료: SeaNews EN, FESCO Deploys Second Container Vessel in KSDL · SeaNews EN, Vladivostok Sea Fishing Port Increases Container Throughput (검색일: 2026-11-01)